

이은무 선교사 선교칼럼(6)

변화하는 선교 환경

선교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 정치 경제의 변화, 문화적 변화, 종교의 이데올로기화로 인한 종교 간의 갈등이 고조 등 세계 정세와 질서의 변화는 지역적 선교 전략의 특징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교의 영향력을 주는 변화들을 도외 시한다면 전략적 선교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사람들의 심성도, 태도도 변화되고 있고, 환경의 영향력 속에서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세대적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 기도한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사람들에게 시대에 뒤지게 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관심 없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하게 된다.



선교에 있어 청중, 즉 그 타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선교가 시간 낭비, 자원 낭비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타깃이 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되어 승리는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선교환경에 선교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변화의 민감성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야 하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하겠다. 세상 사람들의 다원주의적 종교관, 이슬람 종교의 이데올로기화, 자국 우선주의, 민족우월주의,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속에서 현대 선교는 방향을 찾아 가기가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옛날식 전략으로는 저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저들의 욕구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주기도 힘든 다면 선교는 말만 선교를 외치지 실체는 없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몇 가지고 현대 선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1)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속화, 2)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구 국가들의 탈 기독교화, 3) 종교 다원주의화, 4) 서구 선교사들의 잘 못된 이미지, 5) 날이 갈 수록 심화하고 있는 빈부의 차, 5) 서구 교회들의

신학적 불확실성과 선교 신학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선교가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했고, 이로 인하여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선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처한 한국교회의 상황도 선교하기에 녹녹치 않아 보인다. 한 때 선교의 깃발을 들고 전 아시아와 선구 교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영성을 잃어가면서 선교의 사명도 식어져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있다. 우리의 성정은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식어져 가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지 50 년도 못 가서 늙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하는 이 사명이 살아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열매를 따 가지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고, 오히려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교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있지만 선교의 맥을 잡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전략이 없는 선교의 결과 또는 현지인들에 설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 선교사들의 잘 못된 리더십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선교사들의 보고를 위한 선교,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삶을 지나치게 걱정만 하는 선교의 비 헌신적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선교가 식어지는 것은 선교사에게 책임이 크지만 후원자들에게도 책임이 같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는 사람들이나 보내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함께 방향성을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교의 깃발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자세는 안일 무사하기만 하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나 선교사들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선교의 열정을 다시 가다듬어 어야 할 책임을 다시 깨닫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 교회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이 잠재력에 불을 살려서 선교지로 나가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감이지만, 선교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선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교사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이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운동과 힘을 합치는 일은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